

안호성

서울대학교 법학과 석사과정

2019년도 여름학기 헤이그 아카데미 참석

Challenges and Way Forward: The Hague Academy of International Law



2018년 가을, 제가 홍진기법률연구재단을 통해 2019년 헤이그 아카데미 여름 강좌에 대한 지원을 받을 수 있다는 것을 들었을 때 정말로 기뻐했습니다. 헤이그 아카데미는 국제법을 전공하는 학생이라면 한 번 즈음 가보고 싶어 하는 프로그램이라 들었기에, 국제법 석사과정으로 있었던 제게 둘도 없는 기회라고 생각되었습니다. 특히, 국제법의 본고장인 헤이그 그리고 국제사법재판소(ICJ)와 상설중재재판소(PCA)가 위치해있는 평화궁에서 3주간 수업을 들을 수 있었던 것은 큰 영광이었습니다.

이에 짧게나마 제가 헤이그 아카데미에서 보고 듣고 그리고 느낀 것에 대해 들려드릴까 합니다. 먼저 헤이그 아카데미의 프로그램들은 매우 흥미로웠습니다. 이번 학기 헤이그 아카데미의 일반 강좌(General

Lecture)는 호주의 저명한 국제법학자 Hilary Charlesworth 교수님께서 “Art and International Law”라는 주제로 강연을 해주셨습니다. 교수님께서도 마지막 날 말씀하셨지만, 미술 작품들을 국제법적인 렌즈로 접근하려는 하는 시도는 굉장히 실험적(experimental)이었습니다. 그러면서도 한편으로는 기존의 전통적인 연구, 평소 국제법 수업 시간에는 자주 접할 수 없었던 주제였다는 점에서 헤이그 아카데미에서 진행된 강좌 중 단연 가장 흥미로운 주제 중 하나이기도 했습니다. 또, 매주 Interactive Session을 통해서 10여명 정도 되는 그룹을 구성하여 국제법이 예술에 어떻게 투영되어 있는가에 대해 토론하는 시간은 각 국 내지 문화권이 국제법을 수용하는 방법과 태도의 차이에 대해서 몸소 느낄 수 있는 시간이기도 하였습니다.

다음으로, 각 1주일 간 진행된 특별 강좌는 ▲ 외국 형사관할권으로부터 국가공무원의 면제 ▲ 생물다양성 ▲ 자위권: Unwilling and Unable Test ▲ 아프리카 국제재판소 ▲

문화유산 보호 ▲ 조약기반 투자자-국가 분쟁 및 중재에 대해 다루었습니다. 특별 강좌는 일반 강좌와는 달리 특강의 형식으로 짧게 진행 되었기에 해당 분야에 대한 깊은 이해보다는 각 주제에 대한 개괄적인 정리를 목표로 하는 것 같았습니다. 오히려 질의응답과 토론을 할 수 있는 세미나 세션들에서 더욱 흥미로운 이슈들이 다루어졌고, 그렇기 때문에 세미나를 참석하여 토론하는 시간들이 개인적으로는 더욱 즐겁고, 해당 주제들에 대해서 깊이 있게 고민할 수 있는 시간이 아니었나 생각됩니다.

그 중에서 가장 기억에 남는 강좌를 하나 뽑자면 아무래도 문화유산 보호 강좌일 것입니다. Kiel 대학교의 Kerstin von der Decken 교수님 (왼쪽)이 올해의 강사로 오셔서 문화유산 보호와 관련된 협약들의 내용에 대해서 설명해주셨는데, 이 강좌가 가장 기억에 남았던 이유는 크게 두 가지입니다. 첫



번째는, 문화유산법을 체계적으로 설명해주셨기 때문입니다. 수업시간에 교수님께서서는 항상 도표를 통해서 분절된 문화 유산법을 하나의 유기적인 법적 체계로 연결시키기 위해, 또 학생들의 눈높이에 맞춰 설명하기 위해 노력하셨습니다. 그 덕분에 문화유산 보호를 위해 어떠한 법제가 어떠한 상황에서 어떻게 적용될 수 있는지 쉽게 연상할 수 있었고 스스로 많은 공부가 된 시간이었습니다. 두 번째로, 교수님이 문화유산법을 접근하시는 교수법이 수업에 집중할 수 있는 원동력이 되었습니다. 개인적으로 내용뿐만 아니라, 교수자가 학생들과 교류하고 또 어떻게 그 내용을 전달하는지도 중요하다고 생각하는데, 교수님께서 내용뿐만 아니라 법학자가 자신이 아는 내용을 어떻게 전달하고 또 청자와 교감하여야 하는지를 알게 해준 수업이라 기억에 남습니다.

헤이그 아카데미가 제게 잊을 수 없는 추억으로 남는 또 다른 이유는 바로 강좌 외에 학생들이 참여할 수 있는 많은 프로그램들이 마련되어 있었다는 점입니다. ▲ 대사관 방문 ▲ 평화궁 투어 ▲ 국제재판소 방문 ▲ 국제사법재판소 재판관님과의 면담 ▲ 고위급 / 실무자 강연자 초빙 그리고 ▲ Social Event 등이 프로그램에 다채로움을 더했습니다. Peter Tomka 재판관님의 ICJ 역사에 대한 강연이나 Brook Daly PCA 부 사무총장님의 PCA와 중재재판에 대한 강연과 같이 일반 및 특별 강좌 사이에 존재하는 특별 콜로키움이나 세미나들이 있어 학문적으로 풍성한 시간이 되었습니다. 아울러, Gaja 재판관님과 Crawford 재판관님의 Law Clerk들이 마련한 ICJ 모의재판 세션은 국제법의 실제 적용이 재판소에서 어떻게 이루어지는지 같이 고민하고, 증거능력과 같은 절차법적인 요소들에 대해서 학습하고, ICJ 진출 방법에 대해서 들을 수 있었던 유익한 시간이었습니다. 공부 외적으로 헤이그 시청에서의 리셉션이나 해변 파티와 같은 행사들은 여러 나라들에서

온 학생들과 교류할 수 있는 시간이 마련되어 있었는데, 저녁 시간에 모여 각 나라의 음식을 만들어 먹거나 해변에 나가 여유를 만끽하는 것은 하루 종일 진행된 강좌의 피로를 푸는데 적격이었습니다.



아울러 헤이그가 국제법의 중심지인 만큼 많은 기관들에 방문할 수 있었습니다. 유엔전범재판소 잔여업무처리기구 (MICT 박선기 재판관님), 국제형사재판소 (ICC 정창호 재판관님, 권오곤 ASP 의장님), PCA (ITLOS 백진현 소장님)를 방문할 기회가 있었는데, 각 재판소에서 근무하고 계시는 재판관님들께서 바쁘신 와중에도 귀중한 시간을 내주셔서 여러 이야기들을 나눌 수 있었고, 제가 수업시간에 배운 이론적인 내용과 실무적인 내용을 비교 분석하고 고민할 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 특히, ICC에 방문하여 재판관님과 아프리카 국가들에 대한 ‘타겟팅’ 문제와 같이 실무적으로 중요한 문제에 대해서 재판소의 입장을 직접들을 수 있어서 그간 풀지 못한 갈증들을 해소할 수 있었습니다.

비록 헤이그 아카데미와 ICJ, PCA가 같은 건물(premise)을 공유하지만, 실제 사건 심리가 진행되는 재판정은 평화궁 투어가 아닌 이상 실질적으로 접근이 어려웠습니다. 그러나 운이 좋게도 저희가 체류하는 동안 인도 v. 파키스탄 간의 사건에 대한 본안 판단을 하는 시간이 있었는데, 체류기간 동안 여러모로 저희를 챙겨주신 대한민국 대사관에서 감사하게도 조율해주셔서 방청할 수 있는 기회를 가지게 되었습니다. 동 사건은 파키스탄에서 간첩 혐의로 사형



선고를 받은 전직 해군 장교 Jadhav에 대한 영사 접견권을 부여 받지 못하여 인도가 파키스탄을 영사관계에 관한 비엔나 협약 위반 혐의로 ICJ에 제소한 사건입니다. 그간 판결문을 온라인으로만 접하다가 직접 참관하여 보니, 판결 주문을 낭독할 때 양측의 분위기나, 반대 의견의 정치적인 역할(예컨대 본 사건의 대부분의 쟁점에 대해서 파키스탄 국적의 ad Hoc 재판관만 반대의견을 제시)과 같이 판결문을 읽으면서는 느낄 수 없었던 것이 피부로 와 닿았습니다. 판결 후에도, 아카데미에 참가하였던 인도 학생들과 동 사건에 대해 정리하고 토론하면서 개인적으로 Jadhav 사건에 대한 판결을 정리할 수 있었습니다.

사실 유민 펠로우 국제 강좌 지원 프로그램에 붙어 놓고 3학기를 정신없이 보내고 논문학기가 다가오니 헤이그로 무작정 떠나는 것이 올바른 결정이었는지, 너무 성급하게 헤이그 아카데미를 지원한 것은 아니었는지 출국 전까지 설렘보다는 많은 근심과 걱정이 앞섰던 것은 사실입니다. 특히, 시기상 개인적으로 진로에 대한 불확실성과 논문 작성에 대한 압박 때문에 출국일이 다가오면 다가올수록 불안감이 더해졌습니다. 그러나, 이 보고서를 작성하면서 지난 7월 한 달간의 생활을 돌아해보니, 헤이그 아카데미가 생각을 정리하고 또 새로운 길을 열어준 것 같습니다. 무엇보다 국제법의 본고장에서 90여개의 국가에서 온 학생들과 함께 토론하고 생활하면서 많이 배우고, 스스로를 돌아보게 된 계기가 되었던 것 같습니다. 그 중에서도, 불어의 중요성을 새삼 느꼈습니다. 평소 불어 공부를 하겠다는 다짐을 하고 실행에 옮기지는 못하였습니다. 그러나 실제 현장에서 불어를 사용하는 것을 보고 국제재판소에서 근무하시는 분들과 이야기를 나누면서 국제법 공부에 있어 불어는 선택이 아닌 필수라는 것을 몸소 느꼈고, 한국에 돌아와 불어 공부를 본격적으로 해야 한다는 계획을 가장 먼저 세웠던 것 같습니다.



다음으로, 제 진로에 대해서 나름의 구체적인 청사진을 그려볼 수 있는 시간이 되었습니다. 석사 3학기 여름방학은 논문 외에도 향후 진로에 대해서 가장 많이 고민이 드는 시기라고들 합니다. 그래서 저 또한 헤이그에서 직접 보고 듣고 느끼면서 제가 국제법을 공부하면서 어떠한 삶을 살아가고 싶은지에 대해서 고민을 할 수 있는 시간이 있었던 게 도움이 많이 되었습니다. 개인적으로 학위 논문 작성을 앞두고 있는 학생이라면, 국제법 관련 자료가 가장 많은 평화궁 도서관을 활용할 수 있다는 점, 다양한 학생들과 전문가들에게 자신이 작성 예정인 논문에 대해서 토론하고 조언을 받을 수 있다는 점에서 많은 도움이 될 것이라 생각합니다.

마지막으로, 금전적인 걱정 없이 제게 이런 소중한 경험을 할 수 있도록 장학금을 수여해준 홍진기법률연구재단에 깊은 감사를 표합니다. 앞선 경험들과 추억, 그리고 아카데미에서 얻은 교훈들을 바탕으로 향후 대한민국의 법학 발전에 기여할 수 있는 한 사람이 될 수 있도록 열심히 정진하겠습니다. 읽어 주셔서 감사합니다.